

기업은행 — 점유율 +0.76%p, 마진 -0.12%p

중소기업대출 점유율은 24.41%로 올랐고 순이자마진은 1.58%로 내려갔다

- 중소기업대출 잔액 260조 9,255억원(+6.0%), 점유율 23.65% → 24.41%.
- 같은 해 순이자마진은 1.70%에서 1.58%로 0.12%p 낮아졌다.
- 고정이하여신비율 1.28%는 4대 금융지주(0.59~0.74%)의 두 배 수준이다.

점유율과 마진이 반대로 움직였다

FY2025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60조 9,255억원**으로 6.0% 늘었고 시장점유율은 23.65%에서 **24.41%**로 0.76%p 올랐다. 원화예수금도 318조 6,613억원(+7.7%)에 점유율 15.58%→15.97%다.

그런데 순이자마진은 **1.70%에서 1.58%로 0.12%p 낮아졌다**. 자산을 6~8% 늘리면서 마진은 내준 셈이다(표 2).

이 조합은 이 은행의 성격에서 나온다. 정부가 최대주주인 국책은행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대출을 늘리는 국면에서 금리 조건을 시중은행처럼 가져가기 어렵다. **점유율 상승을 성장으로만 읽으면 마진 희생이 보이지 않는다**.

이익은 정체다. FY2025 영업이익 3조 6,556억원(+1.7%)으로 10년 최고이지만 증가 폭은 작고, **1H26에는 영업이익 1조 8,476억원(-5.3%)·지배주주 순이익 1조 4,323억원(-4.6%)으로 감소했다**. 매출 20조 7,559억원(+15.5%)은 이자수익·수수료·금융상품이익 등의 합산이라고 회사가 공시에 밝혔으므로 이익 증가율과 비교하지 않는다(표 1).

부실 지표가 시중은행보다 두껍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4%에서 **1.28%**로 내려갔다. 그런데 **연체율은 0.80%에서 0.89%로 올랐고**, 커버리지 비율은 114.03%에서 **107.7%로 6.3%p 떨어졌다**(표 3).

절대 수준을 같은 배치의 금융지주와 견주면 차이가 분명하다 — 하나금융 0.59%, 우리금융 0.63%, 신한지주 0.74%인데 기업은행은 **1.28%**로 두 배다. 커버리지도 신한 126.55%-우리 129.9%에 비해 107.7%로 낮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결과**이며 그 자체가 부실을 뜻하지는 않지만, 완충이 얇다는 사실은 같이 봐야 한다.

수익성에서도 자산 대비 효율이 낮다. ROE 7.38%는 금융 121사 중 38위(중앙값 4.93%)인데 **ROA 0.54%는 97위**(중앙값 1.50%)다 — 레버리지가 높다는 뜻이며 부채비율 1,258.51%(117위)와 같은 이야기다.

배수는 동종에서 가장 낮은 측이다

PER 6.52배는 금융 81사 중 12번째로 낮고 중앙값 9.16배보다 29% 싸다. PBR 0.45배도 85사 중 14번째로 낮아 중앙값 0.62배 대비 27% 싸다. 이번 배치에서 다룬 금융사 중 가장 낮은 측이다.

배당수익률은 FY2022 9.8%에서 FY2025 5.0%로 내려왔는데, 배당이 줄어서가 아니라 주가가 오른 결과다(연말 PBR 0.3배 → 0.5배).

환원 수단은 제한적이다. 10년 공시에서 확인되는 것은 배당뿐이고 소각·자기주식취득은 없다 — 국책은행 구조상 자사주를 통한 환원이 어렵기 때문이며, 2026년부터 분기배당을 도입했다. **희석 공시도 0건**이고 커진 신호는 부채비율 1건이다.

국면 판단

점유율 확대 마진·이익 정체

현재주가 (26/08/07)

20,750원

목표주가

제시하지 않음

투자자문업이 아니므로 투자 의견·목표주가를 산출하지 않는다.

1순위 점검 지표

순이자마진(NIM)
(FY2025 1.58%, -0.12%p)

Key Data

시가총액	16.5조원
발행주식수(보통주)	7.97억주
PER / PBR	6.5배 / 0.5배(동종 하위권)
외국인 / 공매도 잔고	13.6% / 0.2%
ROE / ROA	7.38%(38위) / 0.54%(97위, 121사)
위험신호 / 표시 점수	1건(부채과다) / 76점 B

영업실적 및 주요 지표

구분	2023	2024	2025	1H26
영업이익(억원)	34,323	35,941	36,556	18,476
순이익(억원)	26,752	26,543	27,189	14,429
자기자본(억원)	318,168	342,311	368,560	주p
순이자마진(%)	주y	1.70	1.58	주p
고정이하여신 비율(%)	주y	1.34	1.28	주p
커버리지 비율(%)	주y	114.03	107.70	주p
연체율(%)	주y	0.80	0.89	주p
중소기업대출 점유율(%)	주y	23.65	24.41	주p

EPS 3,162 → 3,106 → 3,183원. 1H26 지배주주 순이익 1조 4,323억(-4.6%). 7/27 연결 잠정치(검토 전). **주p** 잠정실적 공시에는 재무상태표·현금흐름표가 없다. **주y** 우리 적재분에 그 해 값이 없다(회사 미공시가 아니라 수집 공백).

표 1. 이익은 정체 구간 (단위: 억원, %)

구분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영업이익	10,240	9,274	9,767	7,275	9,325	9,151
순이익	8,142	6,944	7,512	4,591	7,534	6,895
지배주주 순이익	-	6,935	-	-	7,487	6,836
TTM 영업이익	35,884	36,882	35,388	36,556	35,641	-
1H26 — 매출 207,559(+15.5%) · 영업이익 18,476(-5.3%) · 세전 19,054(-3.8%) · 지배주주 순이익 14,323(-4.6%)						
연간 영업이익	15,326(FY16) → 32,313(FY21) → 35,941(FY24) → 36,556(FY25, 10년 최고) — 최근 3년 증가폭은 연 1~2%대					

주: 매출액은 회사 공시 기재대로 이자수익·수수료수익·금융상품관련이익·외환거래익 등의 합산이며 비용 차감 전 총액이다. 증가율(+15.5%)을 이익 증가율과 같은 성격으로 비교하지 않는다. 4분기가 매년 가장 많다(FY2024 6,107억, FY2025 7,275억). 자료: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20260727800560)·분기보고서(2026.03, 20260515001341)

표 2. 점유율과 마진 (단위: 억원, %)

구분	2024	2025	증감
중소기업대출 잔액	2,461,215	2,609,255	+6.0%
중소기업대출 점유율(%)	23.65	24.41	+0.76%p
원화예수금 잔액	2,959,150	3,186,613	+7.7%
원화예수금 점유율(%)	15.58	15.97	+0.39%p
순이자마진(NIM, %)	1.70	1.58	-0.12%p
자산을 6~8% 늘리는 동안 마진은 0.12%p 내렸다 — 점유율 상승을 성장으로만 읽으면 이 희생이 보이지 않는다			

주: 정부가 최대주주인 국책은행으로 경기 대응 자금 공급 역할을 맡고 있어, 대출을 늘리는 국면에서 금리 조건을 시중은행처럼 가져가기 어렵다. 대출 부문별(중소·대기업·가계) 마진이 공시 범위에 없어 NIM 하락을 부문으로 분해하지 않았다. 자료: 사업보고서(2025.12) 대출·예수금 현황·순이자마진

표 3. 건전성과 밸류에이션 (단위: %, 배)

구분	2024	2025	동종 비교
고정이하여신비율	1.34	1.28	하나 0.59 · 우리 0.63 · 신한 0.74 — 두 배 수준
커버리지 비율	114.03	107.70	신한 126.55 · 우리 129.9 — 가장 낮다
연체율	0.80	0.89	+0.09%p — NPL과 반대 방향
수익성·레버리지 (금융 121~125사 기준)			
ROE / ROA	7.38%(38위, 중앙값 4.93) / 0.54%(97위, 중앙값 1.50)		자본 대비 상위, 자산 대비 하위
부채비율	1,258.51%		125사 중 117위(높은 쪽)
밸류에이션 — PER 6.52배(12위, 중앙값 대비 -29%) · PBR 0.45배(14위, -27%) · 배당수익률 9.8%(FY22) → 5.0%(FY25)			
자본배분(10년)	배당만 확인(최근 2026-07-13, 2026년부터 분기배당 도입) · 소각·자사주 없음 · 희석 0건		

주: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결과이며 그 자체가 부실을 뜻하지는 않으나 완충이 없다는 사실은 함께 본다. ROE는 상위권인데 ROA가 하위권인 것은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이며 부채비율 순위와 같은 이야기다. 환원 공시 건수는 10년 수집 범위 기준이라 실제 배당 지급 횟수와 다를 수 있다. 자료: 사업보고서(2025.12) 자산건전성, 동종 리포트 대조, KRX 시세(2026-08-07)

점점 지표

1순위는 순이자마진이다. FY2025 1.58%(-0.12%p)가 더 내려가면 대출을 늘려도 이익이 따라오지 않는다 — 실제로 1H26 영업이익은 -5.3%다. 중소기업대출 점유율 24.41%와 NIM을 반드시 함께 본다. 건전성에서는 고정이하여신비율(1.28%)이 아니라 연체율(0.89%, +0.09%p)과 커버리지(107.7%, -6.3%p)가 방향을 보여준다 — 셋이 같은 쪽을 가리키지 않을 때는 뒤 두 지표가 앞선다. ROA 0.54%는 자산 확대가 이익 효율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축이다. 환원은 배당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므로 분기배당 도입 이후의 총액 흐름을 확인한다.

고지

본 자료는 투자자문·투자권유가 아니며 투자 의견·목표주가 추정 실적을 산출하지 않는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모든 수치는 DART 제출 공시와 한국거래소 시세에서 인용했고 외부 전망치·제3자 추정치는 쓰지 않았다. 분석과 판단은 전부 자체 산출이다. 근거 공시: 사업보고서(2025.12) · 분기보고서(2026.03, 20260515001341) ·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20260727800560).

한계: ① 2Q26은 검토 전 잠정치다. ② 대출 부문별 마진이 공시 범위에 없어 NIM 하락을 중소·대기업·가계로 분해하지 않았다. ③ 대손충당금 절대액이 수집 범위에 없어 커버리지 하락을 금액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④ 동종 비교에 쓴 금융주 수치는 은행 단독이 아니라 그룹 기준이라 성격이 완전히 같지 않다. ⑤ 환원 공시 건수는 10년 수집 범위 기준이라 실제 배당 횟수와 다를 수 있어 환원율을 산출하지 않았다. ⑥ 정책자금 공급 규모가 공시에서 분리되지 않아 국책 역할의 순익 영향을 계량하지 않았다.